

부모의 부부관계의 질과 자녀세대의 부부적응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의 관계

정 윤 경

최 지 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여성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부관계가 현재 자신의 결혼생활에서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기혼여성이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1차 여성가족패널데이터(2007)를 사용하였으며,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기혼 여성 7,708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혼여성이 인지하는 부모의 부부관계의 질은 현재 결혼생활의 부부적응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부부관계의 질과 현재 부부적응과의 관계에서 기혼여성이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기혼여성들은 부모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였다고 인지할수록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태도는 높게, '자녀가 있어도 이혼을 할 수 있다'는 태도는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관계에 대하여 결혼을 지지하고 유지하려는 보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여성일수록 현재 부부관계에서 부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부모의 부부관계의 질이 자녀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그 과정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역할과 경로를 설명해준다. 이를 바탕으로 부부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부모의 부부관계, 부부적응, 결혼에 대한 가치관

[†] 교신저자 : 최지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262
E-mail : zium0113@hanmail.net, Tel : 010-4532-3681

현대의 핵가족 형태에서는 가족문화가 점점 더 부부중심이 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 사회는 과거 부자중심의 부계 직계가족으로부터 현대에 오면서 가족 중심성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았지만(옥선화, 김주희, 박혜인, 신화용, 한경혜, 고선주, 1998; 옥선화 외, 2000), 점차 가족생활에 있어 부부관계 및 부부의 애정적 기능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즉,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생활에서 부부가 중심이 되고, 부부관계가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안정한 부부관계는 개인의 행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가족해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부부관계와 가족생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가정폭력이나 알코올 중독문제와 같은 뚜렷한 행동문제를 보이는 가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역기능적인 가족문제는 이른바 세대 간 전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자녀가 인지하는 부모의 전반적인 부부관계의 질이 자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나 실제적인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다. 또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기혼자녀의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하상희, 2008; Amato & Booth, 2001; Sabatelli & Bartle-Haring, 2003)은 부부관계의 세대 전이를 뒷받침 하고 있지만, 부모의 부부관계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자녀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결혼 관련 가치관은 성인이 되어 결혼하여 가정을 형성하는 것과 자녀 출산과 양육을 당연한 과정으로 여겼고,

결혼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이나 결혼을 대체하는 동거, 결혼관계를 해체하는 이혼 등 전통적 결혼 가치관이 지지하던 개념과 다른 행동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의 증가는 만혼과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결혼을 바라보는 태도와 인식은 원가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개인은 성장과정에서 원가족 속에서 사회화되고, 원가족의 정서 및 가치체계를 공유하게 되므로 가족구성원은 이를 통해 사회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태도와 인식들을 형성하게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다양하다. 부모의 가치관을 그대로 내면화 하거나, 자녀가 부모와 유사한 가치관에 대해 지지나 격려를 받거나,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물려받은 결과로서 유사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Cunningham & Thornton, 2006).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부모는 자신들의 부부관계를 통해 자녀들의 결혼이나 부부관계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자녀는 부모의 결혼생활과 부부관계에 대한 경험을 통해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자녀는 부모의 부부관계를 관찰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부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이혼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부부관계의 질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Amato & Rogers, 1999), 이혼할 가능성이 증가하며(Amato, 1996), 부부관계

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부부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강유진, 옥선화, 2007). 이러한 결과들은 개인이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실제 부부관계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Thornton(1991)이 제시한 바와 같이 부모의 부부관계와 자녀의 부부관계 사이에 연결 고리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중요한 개입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abatelli과 Bartle-Haring(2003)의 연구에서는 원가족에서 부모의 부부관계가 자녀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Kapinus(2004)는 부모의 지속되는 갈등과 이혼의 영향이 아들보다 딸의 결혼생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는 부모의 결혼생활의 영향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 여성이 더 취약하다는 점을 말해주며 결혼생활에서의 여성의 행복과 부부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기혼여성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해준다. 하지만 결혼생활을 주제로 한 기존 연구들에서 결혼 가치관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진한 상태이며, 그마저도 미혼남녀나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혼자의 실제 결혼생활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부관계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로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부모의 부부관계가 연구대상자의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부부관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이후

의 새로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불화한 부부관계의 세대 간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부부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관점

본 연구의 모형은 원가족 이론과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원가족이론(Family of Origin Theory)은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현재의 부부 및 가족생활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보는 이론으로 부부나 가족치료에 있어 널리 사용되는 이론이다. 원가족은 개인이 생리적, 신체적, 정서적 측면에서 발달을 시작한 가족으로서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보낸 가족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Rovers(2004)는 개인이 가진 현재의 자아성, 가치, 행동,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양상은 원가족 경험의 맥락 내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원가족에서의 초기경험은 일생을 통해서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다양한 정도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사람은 원가족이 가진 개인 간 관계 패턴, 역할과 관련된 행동과 기대, 가족 내 관계를 특성화하는 규칙 안에서 성장하며, 이러한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패턴이 세대 간 재생산된다고 예측한다. 즉, 가족은 지식, 태도, 역할 그리고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고 생각의 양식과 행동방식을 주입하는 버릇의 중요한 전달자의 역할을 한다(Rovers, 2004).

원가족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은 원가족의 규칙이나 관계패턴 속에서 성장하여 이러한 특성들이 그 개인의 인식이나 태도, 생각의 양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후의 부부 및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원가족이론에 입각해 볼 때 원가족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모간의 관계는 자녀가 부부 및 가족관계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이후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교환이론(Exchange theory)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결혼의 질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 관점을 제시한다. Thibaut와 Kelley(1959)의 상호의존이론으로부터 발전된 교환이론은 Levinger(1965)에 의해 처음으로 부부관계에 적용되었다. Levinger(1979)는 부부관계의 성공과 실패는 부부관계에서의 매력들, 관계를 끝내는 데에 있어서의 장애들, 그리고 잠재적인 대안들이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가정하였다. 결혼관계에서 매력들은 가족수입, 동반자의식, 성관계 등과 정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간이나 에너지 같은 비용과는 역관계를 갖고 있다. 결혼의 결과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격려하는 재정적 또는 종교적 제약들이 있는가에 영향을 받으며, 현재 관계를 대체할 다른 파트너가 있거나 궁극적으로 관계를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매력들의 존재 여부가 결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Levinger, 1979; Fine & Harvey, 2006에서 재인용). 따라서 Levinger(1976)는 결혼관계에서 보상을 얻지 못하거나 관계를 끝내는 데에 장애가 거의 없을 때, 그 관계를 대체할만한 다른 관계나 매력적인 대안이 있다고 인식할 때 결혼해체의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 하려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계를 유지하거나 떠날 것이라고 본다(Amato & Rogers, 1999). Amato와 Rogers(1999)는 이 이론에 입각

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과 결혼의 질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개인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는 그들이 결혼생활에 자신의 자원을 어느 정도 투자할 것인가의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을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의 결혼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 덜 투자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부부관계의 불일치나 어려움에 대해 상호만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보다, 추가적인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보다 불행한 결혼을 끝내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게 되어 개인적인 희생이나 노력을 덜 하게 된다. 반면 결혼의 영속에 대해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불일치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자원들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교환이론을 적용하면 결혼을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부관계의 불일치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희생이나 노력 등의 자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부부간 상호만족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변화시킨다. 하지만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이나 노력을 덜 투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부간 상호교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해체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결혼생활 및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자신의 노력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로 인해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모의 부부관계가 기혼자녀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Amato와 Booth(2001)는 297명의 부모와 그들의 기혼자녀들에 대한 17년간의 종단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모가 보고한 부부간 불화는 기혼자녀들이 보고한 자신들의 부부간 불화와 정적인 관련이 있었고, 이는 부모와 자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부모의 이혼 여부나 부모-자녀의 관계는 자녀의 결혼생활의 질에 매개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부모의 부부관계의 질이 자녀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이러한 부부불화의 세대 간 전이 양상에 대하여 부모의 부부관계를 자녀가 관찰학습을 함으로써 전달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Sabatelli와 Bartle-Haring(2003)은 125쌍의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원가족에서 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와 자신의 관계의 경험이 현재 결혼생활에서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부부 각각을 나누어서 연구하였다. 그들은 남편과 아내의 원가족 경험 모두 그들의 부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아내의 원가족 경험은 자신의 부부적응뿐 아니라 남편의 부부적응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남편의 원가족 경험은 남편 자신의 부부적응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큰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결혼 관계에서 정서적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여성의 능력이 원가족 경험에 의해 손상되었을 때, 그들의 남편의 원가족 경험에 의한 손상의 결과보다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성공적인 부부적응에 있어 여성의 경험과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해준다.

한편, Tallman, Rotolo 그리고 Gray(2001)는 자녀들이 원가족에서 부모의 행동과 기대를 관찰한대로 장차 그들의 결혼생활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세대 전이 양상에 대해 자녀가 부모의 부부관계를 답습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모의 부부관계가 자녀의 부부관계에 세대전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결혼 초기에 부부가 각각 갖고 있는 결혼관계에 대한 개념은 이미 원가족에서 학습된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결혼 초기 몇 년은 서로 다른 결혼에 대한 기대와 행동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Tallman 등(2001)은 198쌍의 부부를 세 그룹(부부 모두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부 모두 부모가 이혼하지 않은 경우)으로 나누어 3년에 걸쳐 종단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는 부부 양쪽 모두 이혼한 부모를 가진 경우에 부부간 불신과 불일치, 불화가 가장 높게 증가하였고, 부부 양쪽 모두 이혼하지 않은 부모를 가진 부부에게서 이러한 불화가 가장 적게 나타나 부모의 부부관계가 자녀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세대 전이 현상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결혼 초기의 부부 상호작용이 시간이 가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정도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부모가 이혼한 혼합 부부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이혼하지 않은 부모를 가진 배우자는 상대방의 불평과 비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이혼한 부모를 가진 편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Tallman 등(2001)은 이러한 결과가 평생 학습 관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결혼 초기의 부부 상호작용이 부모로부터 학습된 부부관계에 대한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상과 같이 부모의 부부관계와 자녀의 부부관계에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가 부부관계의 세대간 전이 양상을 지지하는 결과를 내놓은 반면에 몇몇 연구들은 부모간의 갈등이나 이혼이 자녀의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더 나은 부부관계를 위해 노력하게 만든다는 연구결과들을 제시하였다. Wallerstein과 Lewis(1998)는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한 자녀들 130명과 그 부모들을 25년간 관찰하고 인터뷰한 결과, 성인기에 들어선 자녀들이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려질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조사대상자들 중 약 25%는 자신도 이혼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그로 인해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성관계 자체를 회피하고 결혼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혼을 한 후에는 자신의 부모처럼 이혼으로 관계가 끝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를 본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였다고 보고하여서, 부부관계에서의 좋은 모델링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Shulman, Scharf, Lumer 그리고 Maurer(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혼이 성인 자녀의 이성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나아가 부모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경우 성인 자녀는 이성관계에서 더 높은 친밀감과 열정

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부모 간 더 높은 갈등으로 자녀가 가족을 떠나고 싶고 이에 로맨틱한 이성관계를 맺으려 할 수 있으며, 이 관계가 성숙한 관계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의존을 반영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한계를 명시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부정적 부부관계에 대한 저항으로 자녀들이 관계문제에서 보다 민감하고 많은 열정을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건강한 형태인지 그리고 실제 부부생활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부모의 부부관계가 자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원가족 이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녀들은 부모의 부부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결혼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고 부부관계의 패턴을 학습할 수 있다. 이에 대해 Chunningham과 Thornton(2006)은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자기 부모들의 결혼을 근접해서 관찰하게 되는데 이 때 초기 인상에 의해서 자녀들의 결혼 혹은 다른 대안에 대한 이미지가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즉 자녀가 관찰한 부모관계가 결혼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보여주는가에 따라 자녀의 결혼과 관련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Chunningham과 Thornton(2006)은 어머니와 자녀 755쌍에 대한 31년간의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여 부모의 부부관계의 질이 전통적으로 정의되는 결혼에 대한 행동과 이에 대치되는 행동들에 대한 자녀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결혼과 관련된 이슈들로서 독신 또는 결혼

선택, 이혼, 동거, 혼전 성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부모의 부부관계가 행복했다고 자녀가 인지할수록 자녀는 이혼과 혼전 성관계를 지지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들이 부모의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지할수록 전통적인 결혼의 개념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들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결혼의 질이 높을 때 부모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자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 간 전이 현상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Kapinus(2005)는 12년의 종단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의 부부관계가 자녀의 이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조사대상 자녀의 연령은 19세에서 40세로 미혼과 기혼이 모두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 부모의 부부관계 행복도는 자녀의 이혼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부모가 이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은 이혼에 대해 보다 긍정적 관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갈등이 심한 경우 자녀들은 부모가 이혼해야 한다고 평가하며 이는 이혼을 지지하는 태도를 갖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양상은 남성의 경우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이혼을 수용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미혼과 기혼의 차이가 없었다. 이에 대해 Kapinus(2005)는 남성들이 결혼을 통해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 덜 지지적이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 행복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Kapinus & Johnson, 2002)가 뒷받침 한다고 설명하였다.

유희정(2005)은 부모가 이혼한 가정과 일반 가정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부모의 이혼이 그들의 결혼 및 이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비교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혼한 가정의 자녀가 결혼보다는 독신을 더 지지하였고, 이혼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게 큰 차이는 아니었다. 오히려 부모의 이혼 여부보다 부모 간 부부갈등이 이혼에 대한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가 이혼한 자녀의 경우에도 이혼 전의 부부갈등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여대생일수록 부모 간 부부갈등이 클수록 이혼에 대해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여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환이론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실제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혼자를 대상으로 결혼안정성을 조사한 전미 종단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Amato와 Rogers(1999)는 3차에 걸친 종단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혼에 대한 태도가 부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연구에서 부부관계의 질을 부부관계 행복도, 상호작용, 부부갈등의 세 영역으로 분석을 한 결과, 이혼에 대해 더 지지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시간이 갈수록 부부관계에서의 행복도와 상호작용이 감소하였고 부부갈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혼에 대해서 더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부관계의 질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혼에 대해서 덜 호의적인 사람들은 관계의 질이 향상되거나 적어도 결

혼의 행복도와 상호작용 감소가 점진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Amato와 Rogers(1999)는 교환이론에 입각하여 보상 없는 결혼은 끝내야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결혼생활에 시간을 덜 투입하게 되고 부부불화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덜 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부관계의 행복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Dush, Taylor 그리고 Kroeger (2008)의 연구에서는 6차례 실시된 전미 종단 조사를 이용하여 부부관계의 행복도가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 및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부관계의 행복도가 높은 집단에 속한 부부들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결혼생활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결혼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시간이 가면서 행복도가 높거나 중간인 집단에서는 전통적인 결혼관에 대해 점점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Dush 등(2008)은 결혼의 영속성을 믿는 부부가 더 높은 부부관계의 질과 안정성을 갖는다는 Amato와 Rogers(1999)의 연구결과에 덧붙여서 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이 결혼제도에 대해 더 지지적이 된다는 해석을 하였다.

홍대식(2005)은 결혼 전의 변수들이 결혼의 질을 예측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427쌍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혼전 변수들과 현재 결혼의 질에 관한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자들이 결혼 전에 갖고 있던 결혼생활의 만족이나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혼전 관계의 만족감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결혼 후 만족감과 결혼 지속의사를 증가시키는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개인이 결혼에 대해서 덜 거부적으로, 이혼에 대해서는 덜 허용적으

로 인식하는 전통적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결혼생활 및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 방법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이 인지하고 있는 성장기에 부모의 부부관계가 현재 자신의 결혼생활에서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매개효과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성장기 부모의 부부관계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지목되고 있는 연령, 학력, 소득, 직업유무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전국 9,068가구의 여성 9,9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여성가족패널(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y)’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남편과 동거하고 있는 기혼여성이다. 따라서, 여성가족패널자료의 조사 대상인 9,997사례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례인 기혼자(8,771명)이면서 별거와 이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일시적으로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를 포함)한 7,708사례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측정도구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부부관계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부모의 부부관계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및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실제로 부모관계가 어떠했는가보다는 연구대상자가 성장기에 부모의 관계를 어떻게 인지하여 이후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및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부관계를 연구대상자가 성장과정에서 인지한 부모의 부부관계로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 중 '15세 무렵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는 어떠했는가'의 질문의 응답을 사용하였다. 이는 Kapinus(2004)의 연구에서 부모의 부부관계가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10대 후반이라고 밝힌 바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문항은 '아주 좋은 편이었다(1)'에서 '매우 좋지 않은 편이었다(5)'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기혼여성이 성장기에 인지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의 가족관련 가치관 문항 중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다룬 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 문항은 '누구나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이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누구나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의 문항은 역코딩 하였으며, '자녀가 있

어도 이혼할 수 있다'의 문항은 원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여 2문항의 각 응답값을 합산하였다. 이에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을 보다 수용하고, 결혼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통적 결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으로 사용된 2개 문항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43$ 으로 나타났다.

부부적응

부부적응의 개념은 부부만족, 부부행복, 부부관계의 질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용어로서 Spanier(1976)는 부부적응을 조화롭고 기능적인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관계라고 전제하고, 결혼생활에서 차이점, 배우자간의 긴장감, 결혼만족도, 부부결합,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합의하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는 부부적응 척도(DAS: Dyadic Adjustment Scale)를 개발하면서 부부관계 만족, 부부 응집력, 부부간 의견합의, 부부간 애정표현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적응을 Spanier(1976)가 정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부부관계의 전반적인 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부부적응을 부부관계의 만족도, 부부가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응집력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여성가족패널자료의 "결혼과 부부생활" 영역 중에서 '결혼에 대한 느낌(행복)',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항목들인 '남편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한다', '남편과 서로 견해가 비슷하다', '남편과 부부생활(성생활)에 만족한다', '남편을 사랑한다'는 DAS의 부부만족도를 구성하는 문항과 유사하다. 또한 부부동반활동에 대한 항목들인 '같이 외출하여 영화, 공연, 스포츠를 관람', '같이 산책, 조깅, 등산, 운동 등을

하기’, ‘같이 시부모님이나 시댁형제들을 만나기’, ‘같이 친정부모나 친정형제들을 만나기’의 문항은 DAS의 부부응집을 구성하는 문항과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적응을 측정하는데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DAS와 맥락을 같이하는 이상의 9개 문항으로 기혼여성의 부부적응을 측정하였다. 결혼생활의 느낌을 묻는 문항은 ‘매우 불행하다(1)’에서 ‘매우 행복하다(7)’의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혼생활 만족도 4문항은 ‘정말 그렇다(1)’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부부동반활동 4문항은 ‘일주일에 두 번 이상(1)’, ‘일주일에 한번정도(2)’, ‘2주에 1번 정도(3)’, ‘한 달에 한번(4)’, ‘한 달에 한 번도 안했다(5)’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생활 만족도와 부부동반활동을 묻는 8문항을 역코딩하였고, 9문항의 응답값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합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부부적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부적응으로 사용된 전체 문항들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49$, 하위차원인 결혼생활 만족도 4문항의 신뢰도는 .876, 부부동반활동 4문항의 신뢰도는 .594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자료의 오류검토 작업 및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부호화 과정을 진행하고 SPSS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각 변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성장기에 인지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기혼여성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결혼에 대한 가치관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Kenny, Kashy 그리고 Bolger(1998)이 제시한 방법과 Sobel test를 사용하였다. Kenny 등(1998)의 매개효과 검증 방법은 먼저 독립변수인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매개변수인 연구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지 알아보고,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부부관계를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연구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투입하여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연구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각각 종속변수인 연구대상자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때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서 부분매개와 완전매개를 해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매개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은 Sobel 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1차년도 여성패널 조사자료 기혼여성 7,708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령은 30대가 2,604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265명(29.4%)이 다음으로 많았다. 20대가 419명(5.4%)으로 가장 적었는데 이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2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164명(41.1%), 대학교 졸업이상 2,333명(30.3%)의 순서로 나타나 응답자의 70%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N=7,708)

	구분	명	%
연령	20세~29세	419	5.4
	30세~39세	2,604	33.8
	40세~49세	2,265	29.4
	50세~59세	1,643	21.3
	60세 이상	777	10.1
학력	무취학 및 초등학교 졸업	1,278	16.6
	중학교 졸업	929	12.1
	고등학교 졸업	3,164	41.1
	대학교 졸업 이상(전문대, 대학원)	2,333	30.3
직업	있음	3,106	40.3
	없음	4,602	59.7
가계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092	14.8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2,035	27.5
	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1,961	26.5
	300만원 초과~400만원 이하	1,067	14.4
	4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599	8.1
	500만원 초과	636	8.6
결혼기간	10년 미만	1,909	24.8
	10년 이상~20년 미만	2,449	31.9
	20년 이상~30년 미만	1,654	21.5
	30년 이상~40년 미만	1,245	16.2
	40년 이상	428	5.6
15세 무렵 부모와의 동거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6,789	88.1
	부모님 중 한분과 같이 살았다	657	8.5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았다	260	3.4
15세 무렵 가정경제형편	아주 잘사는 편이었다	165	2.1
	대체로 잘사는 편이었다	1,315	17.1
	보통이었다	3,434	44.6
	대체로 어려운 편이었다	2,071	26.9
	아주 어려운 편이었다	720	9.3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취학 및 초등학교 졸업도 1,278명(16.6%)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65세 미만 여성을 조사한 것으로 고연령층 여성들의 학교진학율이 낮은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업유무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 중 4,602명(59.7%)은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3,106명(40.3%)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월평균소득은 조사년도 상반기 가구총소득을 6개월로 나눈 것으로 월평균소득이 100만원~200만원 2,035명(27.5%), 200만원~300만원 1,961명(26.5%), 300만원~400만원 1,067명(14.4%)의 순서로 나타나 연구대상자의 월평균소득이 전체 평균인 300만원 내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2,449명(31.9%)으로 가장 많았고, 40년 이상이 428명(5.6%)으로 가장 적었으며, 결혼기간은 연령의 분포와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부모 간 부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바, 성장기 가정환경 특성인 15세 무렵 부모와의 동거와 가정경제형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연구대상자 대부분인 6,789명(88.1%)이 15세 무렵 부모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15세 무렵 가정형편은 보통이다 3,434명(44.6%), 대체로 어려운 편이었다 2,071명(26.9%)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대체로 어려운 편이었다 및 아주 어려운 편이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약 37%를 차지하여 연구대상자들이 성장기 가정경제형편을 어려워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부모의 부부관계, 결혼에 대한 가치관, 부부적응 실태

표 2.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부부관계 (N=6,977)

부모의 부부관계 (M=3.525, SD=.798)	명	%
아주 좋은 편이었다	582	8.3
대체로 좋은 편이었다	3,197	45.8
보통이었다	2,571	36.8
별로 좋지 않은 편이었다	555	8.0
매우 좋지 않은 편이었다	72	1.0

부모의 부부관계

기혼여성이 성장과정에서 15세경에 인지한 부모간 부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구대상자들 중 3,197명(45.8%)은 15세경 부모관계가 대체로 좋은 편이었다고 응답했고, 2,571명(36.8%)은 보통이었다고 응답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82%가 부모의 부부관계가 보통이거나 대체로 좋은 편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연구대상자의 9%는 15세 무렵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편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구조화된 척도가 아닌 결혼 및 이혼에 대한 항목들로 각 문항에 대한 응답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연구대상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항목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인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가 전체 응답의 57%로 나타났고,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문항에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식을 보여주는 응답인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54.8%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연구대상자들이 전반적으로 결혼을 유지하고, 결혼에 대해 거

표 3. 연구대상자의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응답 실태 N=7,708, 명(%)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누구나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1,734(22.5)	2,659(34.5)	2,675(34.7)	631(8.2)

표 4. 연구대상자의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응답 실태 N=7,708, 명(%)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576(7.5)	2,903(37.7)	2,734(35.5)	1,484(19.3)

부적이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3, 표 4와 같다. 본 연구 모형의 분석에서는 연구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으로 위 두 문항을 합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부부적응

연구대상자의 부부적응은 결혼생활 행복도, 결혼생활 만족도, 부부동반활동의 3영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부부적응 실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먼저 문항별 실태를 분석하였다.

결혼생활에 대한 행복한 느낌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자의 약 70%가 행복하다에 가까운 5점, 6점, 7점에 응답하여 연구대상자 중 상당수가 결혼생활에 대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결혼생활 만족도는 결혼생활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문항별 실태는 표 6과 같다. '남편을 사랑한다'는 항목은 긍정적 응답인 '정말 그렇다와 '대체로 그런편이다'라는 응답이 88.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남편과 서로 견해가 비슷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69.8%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 연구대상자들이 결혼생활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부동반활동은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2주에 1번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부부가 함께 외출하는 활동은 11.2%, 함께 조깅이나 운동을 하는 것은 26.1%, 시댁식구들을 만나는 것은 21.9%, 친정식구들을 만나는 것은 17.3%로 나타나 부부가

표 5. 연구대상자의 결혼생활 행복도 N=7,708, 명(%)

결혼생활 행복도	매우 불행하다					매우행복하다	
	1	2	3	4	5	6	7
결혼생활에 대한 느낌	38 (0.5)	106 (1.4)	324 (4.2)	1,690 (22.0)	2,229 (29.0)	2,213 (28.7)	1,098 (14.3)

표 6. 연구대상자의 결혼생활 만족도 N=7,708, 명(%)

결혼생활 만족도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남편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한다	1,701(22.1)	4,207(54.7)	1,606(20.9)	178(2.3)
남편과 서로 견해가 비슷하다	1,034(13.4)	4,341(56.4)	1,938(25.2)	379(4.9)
남편과 부부생활(성관계)에 만족한다	1,092(14.2)	5,187(67.5)	1,242(16.2)	168(2.2)
남편을 사랑한다	1,819(23.7)	4,967(64.6)	820(10.7)	83(1.1)

표 7. 연구대상자의 부부동반활동 N=7,708, 명(%)

부부동반활동	일주일에 2번 이상	일주일에 1번 정도	2주에 1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도 안했다
함께 외출하여 영화, 공연, 스포츠 등 관람	94 (1.2)	327 (4.3)	436 (5.7)	1,644 (21.4)	5,191 (67.5)
함께 산책, 조깅, 등산, 운동하기	38 (5.0)	868 (11.3)	751 (9.8)	1,575 (20.5)	4,108 (53.4)
함께 시부모님이나 시댁형제들 만나기	418 (5.7)	592 (6.7)	694 (9.5)	2,336 (31.8)	3,396 (46.3)
함께 친정 부모님이나 친정형제들 만나기	306 (4.1)	415 (5.6)	567 (7.6)	2,199 (29.5)	3,970 (53.2)

표 8. 연구대상자의 부부적응 실태 N=7,708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결혼생활 행복도	1.00	7.00	5.210	1.186
결혼생활 만족도	4.00	16.00	11.793	2.229
부부동반 활동	2.00	20.00	7.014	2.902
부부적응 전체	5.00	43.00	23.991	4.908

함께 외출하는 활동이 가장 적게 발생하고 있으며, 함께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활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함께 외출을 하는 활동은 한 달에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시댁식구와의 만남이 46.3%로 가장 낮았다. 위에서 부부적응의 세 영역을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부부적응은 최소값 7점에서 최대값 43점의 범위를 갖는데 본 연구에서는 결측값을 포함하여 최소값 5점에서 최대값 43점의

표 9. 부모의 부부관계가 자녀세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N=6,675

구분	B(SE)	β	sig.	VIF	
통제변수	연령	.038(.002)	.271	.000***	1.896
	학력	-.166(.022)	-.121	.000***	2.032
	직업유무 ¹⁾	.047(.034)	.016	.161	1.063
	가계 월평균 소득	-1.6E-.005(.000)	-.003	.778	1.085
독립변수	부모의 부부관계	.056(.020)	.032	.006**	1.012
F		210.083***			
R ²		.136			
Adj. R ²		.135			

1) 0=없음(reference), 1=있음

** $p < .01$, *** $p < .001$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적응의 평균은 23.991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영역별 평균은 표 9와 같다.

부모의 부부관계와 기혼여성의 부부적응의 관계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부모의 부부관계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및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때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연구대상자가 인식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매개변수인 현재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표 9), 연구대상자가 인식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연구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종속변수인 연구대상자의 현재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표 10).

부모의 부부관계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부부관계는 연구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부모의 부부관계의 회귀계수는 $\beta = .032$ 로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았다고 인지할수록 결혼에 대해 보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모델의 전체설명력은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3.6%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p < .001$), 학력이 낮을수록($p < .001$) 결혼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의 부부관계 및 연구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연구대상자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부모의 부부관계만을 투입한 1단계와, 여기에 매개변수인 연구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함께 투입한 2단계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분석결과 1단계에서 부모의 부부관계의 회귀계수는 $\beta = .155$ ($p < .001$)로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았다고 인지할수록 연구대상자의 현재 부부적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2

표 10. 자녀세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매개효과

N=6,673

구분	1단계 독립변수 → 종속변수				2단계 독립변수, 매개변수 → 종속변수				
	B(SE)	β	sig.	VIF	B(SE)	β	sig.	VIF	
통제 변수	연령	-.089(.007)	-.184	.000***	1.896	-.113(.007)	-.234	.000***	1.981
	학력	1.149(.074)	.240	.000***	2.033	1.285(.073)	.262	.000***	2.049
	직업유무 ¹⁾	-.182(.113)	-.018	.108	1.063	-.211(.111)	-.021	.057	1.063
	가계 월평균 소득	.001(.000)	.090	.000***	1.085	.001(.000)	.091	.000***	1.085
독립 변수	부모의 부부관계	.959(.068)	.155	.000***	1.012	.922(.067)	.149	.000***	1.013
매개 변수	결혼에 대한 가치관				.642(.040)	.184	.000***	1.157	
F		357.610***				352.463***			
R ²		.211				.241			
Adj. R ²		.211				.240			
R ² change						.029***			

1) 0=없음(reference), 1=있음

*** $p < .001$

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연구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회귀계수 $\beta = .184$ 로 $p < .001$ 수준에서 연구대상자의 부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에 대해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질수록 연구대상자의 부부적응이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때, 독립변수인 부모의 부부관계는 매개변수가 투입되면서 회귀계수에 비해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자녀세대의 부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한편,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 학력, 가계 월평균 소득이 자녀세대의 부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계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부부적응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서 회귀분석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부부관계는 연구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부부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연구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 부모의 부부관계는 자녀세대의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부모의 부부관계가 자녀세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매개로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표 11.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매개효과 Sobel 검증

경로	Z	p-value
부모의 부부관계 → 결혼에 대한 가치관 → 부부적응	2.758	.006**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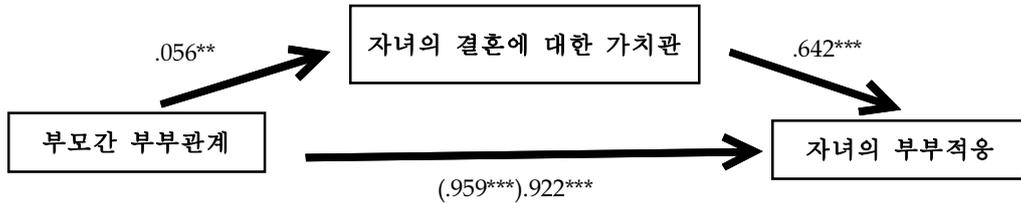


그림 1.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자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연구대상자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Z_{ab} = \frac{ab}{\sqrt{b^2SE_a^2 + a^2SE_b^2}}$$

a(비표준화계수): 부모의 부부관계 → 결혼에 대한 가치관

SEa: a의 표준오차

b(비표준화계수): 결혼에 대한 가치관 → 부부적응

SEb: b의 표준오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그림 2).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원가족에서의 부모 간 부부관계가 현재의 부부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논 의

Sobel 검증 결과 표 11과 같이 부모의 부부관계는 연구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매개로 하여 부부적응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의 부부관계는 부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매개로 하여 부부적응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포함되기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연구대상자의 부모의 부부관계의 B값이 .959에서 .922로 소폭 감소하였고, 부부적응에 대한 영향력은 p<.001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부분매개효과가

본 연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국조사 자료를 분석하였고 따라서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 세대전이는 기존연구들에서 보고된 바 있지만, 전국조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부부관계에서 세대전이 현상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의 세대전이 관련 연구는 가정폭력, 이혼, 알코올 중독 등 문제양상의 전이에 초점을 두었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모세대의 부부관계가 자녀세대의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긍정적 부분 역시 세대전이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향후 여성이나 가족 연구에 있어, 부부관계에서의 보호요인으

로서 원가족의 긍정적 요인을 탐색해야하며, 이들이 연구모형 설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15세경에 인지하는 부모의 부부관계가 현재 자신의 결혼생활에서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부모의 부부관계와 현재의 부부적응 간에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에 대한 논의 및 정책적·실천적 개입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였던 연구대상자의 부부적응과 관련된 실태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자들이 전반적으로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동반 활동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활동을 비교하였을 때, 부부가 함께 외출하여 둘 만의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32.5%로 낮은 반면, 시댁식구들을 만나는 비율은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대상자들은 부부관계에 대체로 만족스럽게 느끼지만 부부중심의 친밀한 활동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친족관계에 치중하는 가족문화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부관계의 친밀감과 부부적응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동 활동 방안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핵가족화와 저출산, 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부부관계의 질이 개인의 행복에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부부 중심의 친밀한 활동은 아직 낮은 현실이며, 본 연구결과에서도 부부가 동반하는 일 중 정서적 공감대와 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활동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홍대식(2005)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결혼만족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상호작용 변인은 남편의 경

우 조화성, 유사성, 공동 활동의 순이었으나, 아내의 경우에는 공동 활동이 가장 높았고 유사성, 조화성의 순으로 나타나 부부의 공동 활동이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부부의 욕구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반영하는 공동 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자들이 부모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였다고 인식할수록 현재 부부관계에서 부부적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였다고 인식할수록 결혼을 지지하고 유지하려는 전통적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원가족에서 경험하는 부모의 부부관계가 자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이후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는 결과로 자녀가 관찰한 부모관계가 자녀의 결혼과 관련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Chunningham & Thornton, 2006) 및 부모의 부부관계가 자녀의 부부간 불화 및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Amato & Booth, 2001; Sabatelli & Bartle-Haring, 200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부모의 부부관계는 연구대상자의 부부적응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부관계가 연구대상자의 부부적응에 매우 강력한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족의 환경이 자녀의 결혼생활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며, 원가족의 핵심이 되는 부모들에 대한 개입과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연구대상자인 기혼여성들의 원가족에서의 경험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확대해보면 원가족이 될 수 있는 모든 부모들이 자

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지지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기혼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좋은 부부관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가족관련 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부모의 건강한 역할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보편적 부모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부모의 부부관계가 기혼여성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부모의 부부관계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매개로 기혼여성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접효과가 강력히 나타나고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의 부부적응에 있어 원가족에서의 부모관계가 직접적인 모델링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자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부모의 부부관계를 따르거나 혹은 반대방향을 지향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다. 비록 간접효과 값이 크지 않지만 부분매개효과는 유의하여, 부모의 부부관계가 원만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자녀는 결혼에 대해 보다 수용적이고, 이혼에 대해서는 덜 허용적인 전통적인 결혼 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치관은 결혼생활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결혼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 기울이게 함으로써 부부적응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결혼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결혼생활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Dush 등(2008)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부부적응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입증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부부관계가 자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통해 자녀세대의 부부적응에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앞서 언급한 부모의 부부관계에 대한 개입 외에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성장과정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건강한 부부관계를 모델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천적 개입에 적용하였을 때, 결혼 초기나 결혼 준비기 성인을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그것이 부모의 부부관계에 의한 영향 인지를 점검하고, 왜곡된 인지와 부모의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 이를 수정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제안할 수 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부부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태도의 수정은 결혼관계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게 하여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미혼 여성의 경우 부부간 불화가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미혼 남성에 비해 이혼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높고(김성희, 2003), 여성이 부모의 부부갈등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Kapinus, 2004). 따라서 이러한 남녀간 성차를 비롯한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수정할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부부간 어려움이나 갈등이 발생할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지원되어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부관계가 자

녀의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인식한 성장기 부모의 부부관계나 연구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한 두 문항으로 측정했다는 점에서 각 문항이 해당 변인을 타당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조사대상의 연령이 20대에서 60대까지로, 이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나 부모의 부부관계 인식을 동일한 변인으로 보는 것에서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의 여성 및 부부관계 실태의 경향성을 살펴보는 것이며, 본 연구의 한계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에 대한 타당한 측정을 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가족관계의 세대전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사대상의 연령도 세분화하여 노년기, 자녀양육기, 미혼여성 등으로 나누어 각 세대에 따른 결혼에 대한 가치관 및 가족 관계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를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부모의 부부관계가 기혼여성의 부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세대간 전이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 외에 다양한 변인들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 부모와 자녀 세대의 부부관계 전이에 영향을 미치고 개입에 함의를 줄 수 있는 잠재적인 변인들을 찾아내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유진, 옥선화 (2005).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155-165.
김성희 (2003). 청년 남녀의 이혼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75-85.
신효영, 방은령 (2007). 미혼과 기혼 남녀의 결혼관 및 자녀관 비교.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옥선화, 김주희, 박혜인, 신화용, 한경혜, 고선주 (1998).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1: 서울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학가정학회지, 36(11), 157-182.
옥선화, 김주희, 박혜인, 신화용, 한경혜, 고선주 (2000).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2: 농촌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0), 157-180.
유희정 (2005). 부모의 이혼과 대학생의 이혼에 대한 태도. 가족과 문화, 17(3), 155-185.
통계청 (2006). 사회조사(보건·가족 부문)결과. <http://www.nso.go.kr>
_____ (2008). 사회조사(보건·가족 부문)결과. <http://www.nso.go.kr>
이상희 (2008).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결혼만족도 및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2), 129-141.
홍대식 (2005). 결혼의 질과 지속의사에 관련된 혼전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2), 67-90.
Amato, P. R. (1996). Explaining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628-640.
Amato, P. R., & Rogers, S. J. (1999). Do attitudes toward divorce affect marital quality?. *Journal of Family Issues*, 20(1), 69-86.
Amato, P. R., & Booth, A. (2001). The legacy of parents' marital discord: Consequences for

- children's marital qu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4), 627-638.
- Cunnungham, M., & Thornton, A. (2006). The influence of parents' marital quality on adult children's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its alternatives: main and moderating effects. *Demography*, 43(4), 659 - 672.
- Dush, C. M., Taylor, M. G., & Kroeger, R. A. (2008). Marital happi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cross the life course. *Family Relations*, 57(2), 211 - 226.
- Fine, M. A., & Harvey, J. H. (2006). *Handbook of divorce and relationship dissoluti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85-86.
- Kapinus, C. A. (2004). The effect of parents' attitudes toward divorce on offspring's attitudes: Gender and parental divorce as mediating factors. *Journal of Family Issues*, 25(1), 112-135.
- Kapinus, C. A. (2005). The effect of parental marital quality on young adults' attitudes toward divorce. *Sociological Perspectives*, 48(3), 319 - 335.
- Kapinus, C. A., & Johnson, M. P. (2002). Personal, moral, and structural commitment to marriage: Gender and the effects of family life cycle stage. *Sociological Focus*, 35, 189-205.
- Kenny, D. A., Kashy, D. A., & Bolger, N. (1998). Data analysis in social psychology.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1, 4th ed. 233-265. Boston, MA: McGraw-Hill.
- Levinger, G. (1965). Marital cohesiveness and dissolution: An integrativ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7, 19-28.
- Levinger, G. (1976).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arital dissolu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32(1), 21-47.
- Levinger, G. (1979). Marital cohesiveness at the brink: The fate of applications for divorce. In G. Levinger and O. C. Moles (Eds.), *Divorce and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Rovers, M. (2004). Family of origin theory, attachment theory and the genogram: Developing a new assessment paradigm for couple therapy. *Journal of Couple & Relationship Therapy*, 3(4), 43-63.
- Sabatelli, R. M., & Bartle-Haring, S. (2003).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adjustment in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159-169.
- Shulman, S., Scharf, M., Lumer, D., & Maurer, O. (2001). Parental divorce and young adult children's romantic relationships: Resolution of the divorce experi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1(4), 473-478.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1), 15-38.
- Tallman, I., Rotolo, T., & Gray, L. N. (2001). Continuity or change? The impact of parents' divorce on newly married coupl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4(4), 333-346.
- Thibaut, J. W. & Kelley, H. H. (1959).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ew York: John Wiley & Sons.
- Thornton, A. (1991). Influence of the marital history of parents on the marital and

- cohabitational experiences of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 868-894.
- Wallerstein, J. S., & Lewis, J. (1998). The long term impact of divorce on children: A first report from a 25-year study.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Review, 36, 363-383.
- 1 차원고접수 : 2010. 4. 26.
심사통과접수 : 2010. 8. 27.
최종원고접수 : 2010. 9. 20.

The effect of parents' marital quality on married women's marital adjustment and perspective toward marriage

Chung, Yun Kung

Choi, Ji Hyeon

Yonsei University, 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effect of married women's perception of parent's marital relations on the perspective toward marriage and marital adjustment. The data of the 1st KLoWF -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y is used, and 7,882 cases of married women living with their spouses are analyzed. The result indicates that married women's perception of their parent's marital relations affect the current marital adjustment. Precisely, women who recognize that their parent's relations were not harmonious tend to have lower adjustment in their own marriage. Further, parent's marital quality directly affect married women's marital adjustment and indirectly through the perspective toward marriage. Drawing on the result, this study suggests interventional methods; the necessity of extending couple-centered family culture, enhancing couple counseling and treatment for marital adjustment, preventive programs to preclude marital relations from transmitted between generations.

Key words : *parent's marital quality, perspective toward marriage, marital adjustment*